

『世說新語』를 통해 본 王坦之의 인물형상

김진영*

<目 次>

1. 머리말
2. 王坦之가 처했던 시대상황
3. 王坦之의 인물형상
4. 맺음말

1. 머리말

宗白華는 그의 저서인 『美學散步』에서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치문화배경 및 그 審美특징에 관해 “漢末魏晉六朝는 중국정치에 있어 가장 혼란한 시대였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사회였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자유스러웠으며 지혜가 풍부하고 가장 열정적인 시대였다. …… 따라서 이 수백년 간의 시기만이 정신적인 대해방과 인격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자유를 누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내면속의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함과 잔혹함, 거룩함과 사악함이 함께 극도로 발휘되었다. (漢末魏晉六朝是中國政治上最混亂，社會上最痛苦的時代，然而却是精神史上極自由、極解放，最富於智慧、最濃於熱情的一個時代。……只有這幾百年間是精神上的大解放，人格上思想上的大自由。人心裏面的美與醜、高貴與殘忍、聖潔與惡魔，同樣發揮到了極致。)”¹⁾라고 언급하며 魏晉南北朝 시기는 중국역사상 중요한 전환의 시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인덕대학 중국어과 부교수

1) 宗白華 著, 『美學散步』,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208쪽 참조.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士인들의 생존의식과 사고 역시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인생관을 전개하게 되었고, 아울러 魏晉南北朝가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정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자유스럽고 美的 성취가 가장 컸던 시기였음을 지적하였다.

東漢 중기부터 형성된 외척과 환관이라는 두 집단의 전횡으로 정치는 날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환관이 정권을 독점한 후 정국은 더욱 더 어지러워지게 된다. 이 시기 中國의 사상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儒學의 붕괴와 老莊思想의 대두이다. 東漢 말 학술경학이 陰陽五行과 뒤섞이고 讖緯說이 성행함에 따라 사회가 온통 미신의 풍조로 만연하게 되어 이에 대한 반동으로 反儒의 거센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부패에 대해 위정자들을 비평하던 清議는 결국 잇따른 黨錮의禍와 정치적 박해로 해를 당하게 되자, 清議를 일삼던 士人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 이상 政事를 논하지 않고 당시 유행하던 老莊의 학문에 의지하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議論으로부터 추상적 개념에 의거한 談論으로 전향하여 품성과 식견의 정도를 나타내는 모호한 言談을 나누거나 인물을 폄평하는 등 당시의 정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즉, 黨錮의禍 이후 鄉論으로서의 清議는 점차 사회적 기능을 잃고 사적인 장소에서 정치성을 배제한 채 자유로이 인물의 內在美를 추상적인 언어로 형상화시키는 清談의 기능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렇게 清談을 나누는 名士들은 당시 사회에서 여전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시기 사회의 기풍이 무너지고 정치가 부패하게 되어 사상윤리의 위기가 가속화되었고, 결국 儒家의 經學은 人心 유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綱常名教은 이러한 일로 부정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새로운 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魏晉南北朝시기는 道家思想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儒家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사회전반의 문화는 道家의 清靜無爲의 색채가 지배하였으나, 문벌제도 안에서는 儒家의 經學이 家教를 통해 전수되는 이중구조를 지닌 시기라고 할 수 있다.²⁾ 東漢 末年에서 魏晉시기에 걸쳐 儒家思想을 대신하여 사상의 중심이 된 老莊思想의 성행 속에서 儒家思想이 완전히 사

2) 朴敬姬, 「謝道韞을 통해 본 清談時代의 여성」, 『中語中文學』, 2002, 31집, 245쪽 참조.

라진 것은 아니었다. 漢代 이래로 정치제도나 사회예법 등이 모두 六經을 근거로 하고 있어 儒家思想은 여전히 정통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³⁾ 玄學에 심취했던 당시 士人들은 어려서부터 유학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의식 역시 老莊思想이 성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⁴⁾

이러한 儒家의 家風을 잘 보여주는 가문이 바로 王承, 王述, 王坦之로 대표되는 太原王氏라 할 수 있다. 太原王氏는 王導가 중심이 되는 琅琊王氏에 버금가는 大族으로 사회적 명망에 따른 우월감이 대단하였다. 王坦之가 활약했던 당시는 야심가들에게 정권이 유린되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桓溫이 東晉의 군사적 요충지인 荊州의 刺史로 임명되고 서부 諸州의 軍事를 감독하게 하여 이후부터 荊州는 譙郡 桓氏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桓溫이 後蜀을 정벌하고 돌아온 후, 그 권위와 명성은 날로 신장되어 조정에서도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會稽王 司馬昱은 桓溫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殷浩를 등용하였으나 殷浩가 前秦 정벌을 실패하고 폐출됨으로써 内外의 大權은 모두 桓溫이 장악 호시탐탐 반역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⁵⁾ 그러나 그의 정치적 야심은 정권의 중심에 있던 王坦之와 謝安의 방해로 실패하고 만다. 본 논문은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王坦之의 고사를 적출 집중하여 당시 명문 귀족 출신으로 혼란한 시기 정치의 중심에서 활발히 활약했던 王坦之의 완전한 인물형상을 창출해보고, 아울러 老莊思想의 성행속에서 儒家思想이 여전히 士人들로부터 존송받고 있는 당시 사상의 이중적 구조를 王坦之와 그가 속한 太原王氏를 통해 엿보고자 한다.⁶⁾

3) 朴美齡 著, 『世說新語中所反映的思想』, 臺北, 文津出版社, 1990, 33-34쪽 참조.

4) 西晉시대에 老莊의 도를 흠모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의문점을 물어 보려고 왕이보(王衍)를 찾아갔다. 마침 왕이보는 어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약간 피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응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말하길 “내 몸이 지금 조금 좋지 않소. 하지만 배일민(裴頠)이 또한 이 근처에 살고 있으니 당신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 보시오” 라고 했다. (中朝時, 有懷道之流, 有詣王夷甫諮疑者. 值王昨已語多. 小極, 不復相酬答; 乃謂客曰: 「身今少惡, 裴逸民亦近在此, 君可往問.」) 『世說新語』 文學편 제11조에서 볼 수 있듯이 대표적인 清談家인 王衍이 老莊思想에 반대하는 「崇儒論」 지은 裴頠에게 묻도록 추천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儒敎와 老莊의 사상이 절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56-58쪽 참조.

6) 敍事의 중심이 사건에 있는 『晉書』와는 달리 『世說新語』는 敍事의 핵심이 인물형상의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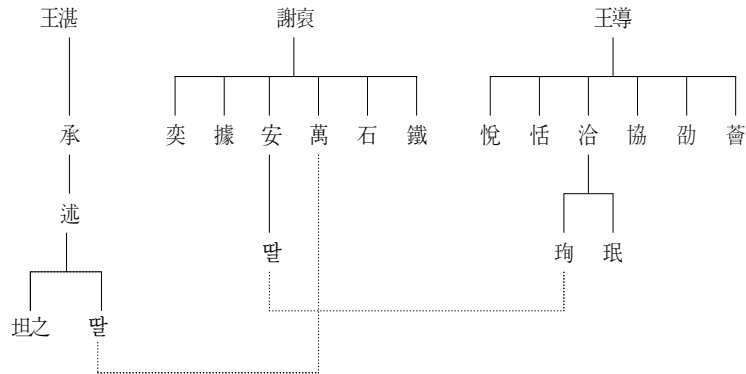
2. 王坦之가 처했던 시대상황

漢代 정권은 儒學을 숭상하여 經學이 특히 발전하였다. 당시 유학자는 학술을 연마하는데 매우 엄격하여 독특한 家法으로 자손들을 가르치는 관습이 있었다. 漢代 정권은 經學으로 뛰어난 유학자를 조정의 관리로 임명하였으며,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관리의 후손은 자연 관직에 계속 등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세력세습은 소위 '門閥'을 형성하게 되었고 西晉과 東晉 두 시기에 걸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왕문도(王坦之)가 환공(桓溫)의 장사로 있을 때, 환공이 아들을 위해 왕문도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청하자, 왕문도는 [부친] 왕림전(王述)과 상의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전은 문도를 매우 사랑하여 비록 장성했지만 여전히 그를 끌어안아 무릎 위에 앉혔다. 문도가 환공(桓溫)이 자신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청한다는 말을 했더니, 남전이 대노하여 문도를 무릎 아래로 밀쳐내며 말하길 "문도 네가 이렇게 명칭한 줄을 어찌 알았겠느냐? 환온의 얼굴을 두려워하다니! 군인 나부랭이에게 어떻게 딸을 시집보낼 수 있단 말이냐?"라고 했다. 그래서 문도가 돌아가 보고하길 "下官의 집에서 이미 혼처를 정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자, 환공이 말하길 "내 그럴줄 알았어. 그건 [그대의 뜻이 아니고] 그대의 부친이 허락치 않은 것일 뿐이겠지"라고 했다. 나중에 환공은 결국 자신의 딸을 문도의 아들에게 시집보냈다.⁷⁾

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橫的 연구방법에 의한 개별적 분석(예를 들어 비교, 비유 등의 표현기교)이나 典型別로 분석하는 순차적 방식이 아닌 縱的인 방법으로써 각 편목에 산재되어 있는 한 인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출, 분석하는 종합적인 인물분석을 통하여 王導와 謝安, 桓玄 등 주요인물 10여 명의 인물형상을 이미 살펴보았으며, 그 나머지 인물들의 형상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작업은 『世說新語』의 史料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世說新語』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물들의 형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7) 王文度爲桓公長史, 桓爲兒求王女, 王許諾藍田. 旣還, 藍田愛念文度; 雖長大, 猶抱著膝上. 文度因言桓求己女婚. 藍田大怒, 排文度下膝曰: 「惡兒文度已復癡, 畏桓溫面? 兵, 那可嫁女與之!」 文度還報云: 「下官家中先得婚處。」 桓公曰: 「吾知矣, 此尊府君不肯耳。」 後桓女遂嫁文度兒. 『世說新語』 方正篇 卷58조.



위의 인용문과 도표에서 名士나 문벌의 우월감, 高下관념 등을 쉽게 엿볼 수 있다. 문벌의 유지는 바로 그들의 경제 및 혼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⁸⁾. 현재 향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名門大族간의 혼인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문벌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이 형성한 세력의 자기 문벌의 인물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그 지위의 高下와 名譽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곤 하였다.⁹⁾

왕술이 상서령으로 전임되어 인사 발령이 나자 곧바로 부임했다. [그의 아들] 문도(王坦之)가 말하길 “일부러라도 두씨나 허씨에게 양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했더니, 남전이 이르길 “너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하자, 문도가 말하길 “어찌 감당하실 수 없겠습니까? 다만 겸양을 잘 하는 것은 자고로 훌륭한 일로 여겨지는지라 아마도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남전이 탄식하며 말하길 “이미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찌 다시 겸양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람들은 너를 나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제보니] 분명 나만 못하구나”라고 했다.¹⁰⁾

8) 楊美愛, 「世說新語新探-從世說新語探魏晉之思想社會與亡國」, 『弘光護專學報』, 1978, 6권, 54쪽 참조.

9) 何啓民 著, 「中古門第之本質」, 『中古門第論集』, 臺北, 學生書局, 1978, 3쪽 참조.

10) 王述轉尙書令, 事行便拜. 文度曰: “故應讓杜許.” 藍田云: “汝謂我堪此否?” 文度曰: “何爲不堪! 但克讓自是美事, 恐不可闕.” 藍田慨然曰: “既云堪, 何爲復讓? 人言汝勝我, 實不如我!” 『世說新語』 方正편 제47조.

왕승은(王禕之)이 임공(支遁)을 경시하자. [부친] 남전이 말하길 “네 형[왕탄지]을 따라 하지 말아라. 네 형은 본래 그만 못하느니라”라고 했다.¹¹⁾

당시 老莊思想을 숭상하는 사회의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해 儒家에서 강조하는 長幼有序에 제한 받지 않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폄평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폄평하는 등 매우 활발한 폄평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위나 나이의 高下와 상관없이 好評과 惡評을 주고받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惡評의 경우는 같은 문벌의 인물을 貶下하기 보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혼계하는 성질의 경향을 농후하게 띠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의 평가의 결과가 그 지위의 高下와 名譽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아울러 정치가 어지럽고 왕조가 끊임없이 경질되는 시대상황 속에서 전 가족 공동체의 생명이 달린 문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였다 할 수 있다.

太原王氏는 山西省 太原지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周靈王 太子 晉公의 후예로 琅琊王氏, 浙江王氏 등王氏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지역의 명망 있는 가문이 되었으며, 隴西李氏, 趙郡李氏, 清河崔氏, 博陵崔氏, 范陽盧氏, 滎陽鄭氏 등 일곱 대가문과 함께 중국에서 五姓七族으로 불리는 명문으로 특히 魏晉시대부터 唐에 이르는 시기 명성을 널리 떨쳤던 가문이다.

王坦之의 조부인 王承(275-320)¹²⁾은 字가 安期이며, 太原 晉陽(지금의 山西 太原) 사람이다. 관직에 오른 후 줄곧 관대함과 인자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훌륭한 명성과 덕망으로 당시에 이름을 날리었다.

왕안기(王承)가 동해군의 태수로 있을 때, 어떤 말단 관리가 연못 속의 물고기를 훔쳤다. 主簿가 그에게 죄를 묻자, 왕안기가 말하길 “문왕의 동산은 못 백성들과 함께 공유했으니 연못 속의 물고기가 무에 그리 아깝단 말인가?”라고 했다.¹³⁾

11) 王僧恩輕林公。藍田曰：“勿學汝兄，汝兄自不如伊。”『世說新語』品藻篇 제64조.

12) 『晉書』卷75「王承傳」 참조.

13) 王安期爲東海郡，小吏盜池中魚，綱紀推之。王曰：“文王之囿，與衆共之，池魚復何足惜?”『世說新語』政事篇 제9조.

왕안기(王承)가 동해군의 태수로 있을 때, 통행금지를 범한 자를 관리가 잡아 왔다. 왕안기가 묻길 “어디에서 오던 길이고?”라고 하자, 대답하길 “스승님 댁에서 글공부하고 돌아가던 길입니다만, 그만 날이 저문지도 몰랐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안기가 말하길 “영월을 채찍질하여 위엄을 세운다는 것은 아마도 다스림의 근본이 아닌 듯하다”라고 하면서, 관리에게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라고 했다.¹⁴⁾

政事편의 두 고사는 孟子가 齊 宣王의 가혹하고 인색함을 지적한 『孟子·梁惠王下』의 典故와 본래 농부였으나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周 威公의 스승이 된 寧越에 관한 『呂氏春秋』 博志편의 典故를 이용하고 있다. 王承은 상당히 이성적인 관리였던 것 같다. 죄의 輕重에 따라 전후사정을 파악한 후 엄한 기강으로 죄를 묻기보다는 용서와 관용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특히 글공부 때문에 통행금지를 어긴 점을 높게 평가하여 書生을 寧越에 비유하여 죄를 묻기는 커녕 그냥 돌려 보내 주었다. 이는 王承의 愛民정신을 대표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그의 人情味 넘치는 기풍은 정치윤리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仁民愛物의 儒家정신을 극도로 발휘하고 있다.

王坦之의 부친인 王述(303-368)¹⁵⁾은 字가 懷祖이다.

왕술은 자가 懷祖이며 태원 진양 사람이다. 조부 왕담과 부친 왕승은 모두 명성이 높았다. 왕술은 일찍 부친을 여의었으나 극진한 효성으로 모친을 섬겼으며, 누추한 골목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나 온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다. 이 때문에 식자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졌다. 남전후에 습봉되었다.¹⁶⁾

왕술은 젊었을 때 빈곤하여, 한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마을에 살았지만, 명예나 영달을 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자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다.¹⁷⁾

14) 王年期作東海郡，吏錄一犯夜人來。王問：“何處來？”云：“從師家受書還，不覺日晚。”王曰：“鞭撻寧越以立威名，恐非政治之本？”使吏送令歸家。『世說新語』政事편 제10조.

15) 『晉書』卷75 『王述傳』 참조.

16) 述字懷祖，太原晉陽人。祖湛，父承，並有高名。述蚤孤，事親孝謹，簞瓢陋巷，宴安永日。由是爲有識所知，襲爵藍田侯。『世說新語』文學편 제22조 劉孝標 注引 『王述別傳』.

이상의 고사에서 王述의 생활환경은 가난하고 누추하였으나 조부인 王湛과 부친인 王承의 명성과 함께 명예와 영달을 구하지 않아 널리 이름이 알려졌으며, 가문에 대한 긍지와 자존심 역시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魏晉南北朝시기는 道家思想에 의해 주도되어 사회 전반의 문화는 道家의 淸靜無爲의 분위기가 지배하였으나 儒家와 단절된 것은 아니었으며, 王坦之가 속한 太原 王氏의 家風 역시 조부인 王承은 仁民愛物의 儒家정신과 덕망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부친인 王述은 『左傳』에 정통할 만큼 상당히 儒家의이었다.¹⁸⁾ 이렇듯 太原 王氏는 당시 사상의 이증성을 대표하는 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穆帝 永和 元年(345) 庾亮의 동생 庾翼이 임종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庾爰之를 荊州刺史의 후임으로 임명해 달라는 표문을 올렸으나 조정에서는 桓溫을 東晉의 군사적 요충지인 荊州의 刺史로 임명하였다.¹⁹⁾ 庾翼의 뒤를 이어 荊州刺史가 된 이후 桓溫은 德治를 표방하여 관용과 온화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혼란한 정국 속에서 말을 잘못하면 화가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말을 아끼며 明哲保身의 태도를 취했다. 桓溫이 後蜀을 정벌하고 돌아온 후, 그 권위와 명성은 날로 신장되어 조정에서도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會稽王 司馬昱은 桓溫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殷浩를 등용하였으나 殷浩가 前秦 정벌을 실패하고 폐출됨으로써 內外의 大權은 모두 桓溫의 手中으로 들어갔다. 조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桓溫은 결국 前秦 姚襄의 군대를 격파하고 殷浩가 성공하지 못한 洛陽 수복을 穆帝 永和 12년(356)에 이루게 된다. 그 후 北方의 前秦과 前燕이 강성해져 洛陽이 前燕에 의해 다시 점령되었다. 이에 廢帝 太和 4년(369) 桓溫은 직접 北征하여 林渚에서 前燕의 慕容暉, 慕容垂, 傅末波 등을 격파한 뒤 枋頭까지 진격했지만 군량미가 떨어져 퇴각하고 말았는데, 도중에 慕容垂의 추격을 받아 군사 3만을 잃고 대패하였다. 桓溫이 平北將軍 겸 徐州와

17) 述少貧約, 簞瓢陋巷, 不求聞達. 由是爲有識所重. 『世說新語』賞譽篇 第91조 劉孝標 注引 『晉陽秋』.

18) 『世說新語』任誕篇 第23조 劉孝標 注引 『裴子』에 王坦之의 부친인 王述이 『左傳』을 연구하여 『春秋左氏經傳通解』와 『春秋旨通』을 지었는데, 王坦之가 東漢의 大儒學者인 鄭玄을 본받아 儒學의 경전을 사수하면서 王述의 학문을 전수했다는 기사가 있다.

19) 『世說新語』識鑒篇 第19조 참조.

兗州의 刺史로 있을 太和 4년(369), 前燕의 慕容垂에게 枋頭에서 대패하고 난 뒤,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郗超의 계략에 따라 太和 6년(371) 東晉의 제7대 황제인 廢帝 司馬奕을 폐위시켜 海西公으로 앉히고, 대신 會稽王 司馬昱(簡文帝)을 황제로 옹립하였으며, 簡文帝가 즉위한 咸安 元年(371) 11월에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簡文帝的 형인 司馬晞도 폐출시켰다.²⁰⁾ 司馬師와 司馬昭 형제는 魏朝 찬탈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인물들로서 桓溫의 말 속에서 제위찬탈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仁德으로 만인의 존망을 받았으나 後蜀과 前秦 북벌의 성공으로 권력을 장악한 후 廢帝를 폐위시키는 등 그의 정치적 야심은 결국 노골적으로 九錫文²¹⁾을 요구하였으나 王坦之와 謝安 등의 비협조와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姑孰에서 病死하여 정권은 무사할 수 있었다.

3. 王坦之의 인물형상

王坦之(330-375)²²⁾는 字가 文度이다. 어려서부터 효심과 우애가 깊었으며, 세간에 양주의 독보적인 존재 왕문도, 후진 가운데 출중한 인물 치가빈(諺曰: “揚州獨步王文度, 後來出人郗嘉賓.”)²³⁾이라고 불릴 만큼 고귀한 식견과 기량으로 명성이 조야에 자자하였다. 또한 젊었지만 높은 지위에 올라 당시의 모범이 되었으며 가문에 대한 긍지와 자존심 역시 상당하였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²⁴⁾

왕중랑(王坦之)이 젊었을 때, 강반이 복야가 되어 관리를 선발하면서 그를 상서랑에 내정하려 했다.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왕중랑에게 알려

20)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56-58쪽 참조.

21) 큰 공을 세운 權臣을 칭송하고, 아울러 그 사람에게 제위를 禪讓할 준비를 하기 위한 조서를 말한다.

22) 『晉書』 卷75 「王坦之傳」 참조.

23) 『世說新語』 賞譽篇 第126조 참조.

24) 『世說新語』 言語篇 第72조 劉孝標 注引 『王中郎傳』, 品藻篇 第72조 『續晉陽秋』, 排調篇 第46조 참조.

주었더니, 왕중랑이 말하길 “강남으로 건너온 이래로 상서랑에는 정작 제2류의 인물만을 기용했는데, 어떻게 나를 내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강반은 그 말을 듣고 [그를 선발하려는 생각을] 그만 두었다.²⁵⁾

한편 東漢시기 尙書郎은 청빈하고 명망있는 가문의 요직이었으나 晉代에 이르러 官位 尙書郎의 권세는 점차 없어지고 주로 문서를 기초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名門大族들은 이를 번거롭게 여겨 피하게 되었고 대신 출신이 낮은 자들이 기용되었다. 王坦之는 젊어서부터 제2류(第二人)의 인물들이 기용되는 尙書郎의 직책을 거부할 정도로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뛰어난 식견으로 揚州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았다.

왕문도(王坦之)가 서주(揚州)에 있을 때, 임법사(支遁)와 강론했는데, 한백과 손작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임공(支遁)의 논리가 번번이 약간 열세에 몰리려 하자, 손홍공(孫綽)이 말하길 “법사는 오늘 헤친 솜옷을 입고 가시나무 속에 있는 것처럼 닿는 곳마다 걸리는군요”라고 했다.²⁶⁾

王坦之는 佛經에 대해서도 정통하였고²⁷⁾, 또한 經傳의 義理에 대해 담론할 때에도 논리가 치밀하여 東晉 佛教의 중심인물인 支遁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환공(桓溫)이 병사를 매복시켜 놓고 잔치를 열어 조정의 인사를 널리 초청했는데, 그것을 기회로 사안과 왕탄지를 주살하려고 했다. 왕탄지가 몹시 다급해 하면서 사안에게 묻길 “어떤 계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소?”라고 하자, 사안은 안색에 변함이 없는 채로 문도(王坦之)에게 말하길 “晉 조정의 존망이 이 한 번의 행동에 달렸소!”라고 했다. 그리하여 함께 나아

25) 王中郎年少時，江彪爲僕射，領選，欲擬之爲尙書郎，有語王者，王曰：“自過江來，尙書郎正用第二人，何得擬我？”江聞而止。『世說新語』方正篇 제46조.

26) 王文度在西州，與林法師講，韓孫諸人並在坐，林公理每欲小屈，孫興公曰：“法師今日如箸繫在荊棘中，觸地掛闔。”『世說新語』排調篇 제52조.

27) 『世說新語』文學篇 제35조에서 이미 維摩詰이 묵묵한 태도를 보이는 고결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支遁은 文殊師利처럼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가 없다고 여기고는 자신이 말을 하지 않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支遁을 비꼬고 있다.

갔는데, 왕탄지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났지만, 사안은 늙름한 태도가 얼굴에 더욱 드러났다. 계단을 바라보고 자리로 가면서 [사안이] 낙양 서생의 창법²⁸⁾으로 “도도한 저 큰 물결이여”라는 시를 읊었다. 환온은 그의 광대하고 심원한 기품에 주눅이 들어 곧장 복병을 해산시켰다. 왕탄지와 사안은 예전부터 명성을 나란히 했는데, 이 일을 가지고 비로소 그 우열을 가리게 되었다.²⁹⁾

桓溫은 제위찬탈에 방해가 되는 謝安과 王坦之를 제거하려 했으나 生과 死의 기로에서 謝安은 두려워하는 王坦之와 달리 오히려 당시 유행하던 ‘洛生詠’의 창법으로 태연자약하게 시를 읊어 두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또한 雅量편 제30조에서는 초조해하며 인내심 없는 王坦之의 모습이 謝安과 비교되어 부각되고 있는데, 이렇게 王坦之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조적인 수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폄하되고 있다.

왕문도(王坦之)와 범영기(范曄)가 함께 간문제(司馬昱)의 초청을 받았는데, 범영기는 나이는 많았지만 지위가 낮았고, 왕문도는 나이는 적었지만 지위가 높았다.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서로 앞서라고 양보하다가 함참 [실랑이를 벌인] 뒤에 왕문도가 결국 범영기의 뒤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문도가 말하길 “까부르고 날리고 나니 겨와 쪽정이란 앞에 있네”라고 하자, 범영기가 말하길 “씻어내고 골라내고 나니 모래와 조약돌만 뒤에 있네”라고 했다.³⁰⁾

한편 魏晉시기에는 총명한 才智를 매우 중시하여 언어유희가 유행하였다. 이러

28) ‘洛下書生詠’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유행했던 창법으로 둔탁한 鼻音으로 노래하였다. 輕詆 편 제26조 역시 이와 관련된 고사로 顧愷之가 이를 ‘늙은 종년의 소리’에 비유하여 비꼬고 있다. ‘洛生詠’은 둔탁한 소리를 내는 北方의 창법이어서 吳地 출신인 顧愷之가 맑고 낭랑한 南方音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北方 창법을 무시한 것이다.

29) 桓公伏甲設饌，廣延朝士，因此欲誅謝安，王坦之，王甚遽，問謝曰：“當作何計？”謝神意不變，謂文度曰：“晉祚存亡，在此一行！”相與俱前，王之恐狀，轉見於色；謝之寬容，愈表於貌；望階趨席，方作「洛生詠」，諷「浩浩洪流」，桓憚其曠遠，乃趣解兵，王謝舊齊名，於此始判優劣。『世說新語』 雅量篇 第29條。

30) 王文度范榮期俱爲簡文所要；范年大而位小，王年小而位大；將前，更相推在前；既移久，王遂在范後。王因謂曰：“簸之揚之，糠粃在前。”范曰：“洗之汰之，沙礫在後。”『世說新語』 排調篇 第46條。

한 언어유희에는 순간적이면서도 直覺的인 민첩성이 요구된다. 捷悟편 제1, 2, 3조에서 볼 수 있는 析字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范曄와 서로 '겨와 쪽정어', '모래와 조약돌'에 비유하며 상호 비방하는³¹⁾ 저속한 유희는 현실에 대한 목적성과 암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진정한 언어유희³²⁾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러한 점은 王坦之가 大政治家로서의 기품이 부족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王坦之가 어려서부터 재능을 인정을 받았고 고귀한 식견과 심오한 학식을 지녔음은 분명하다. 또한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서슴없이 직언하는 모습에서 가문의 후광도 없지 않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東晉의 명재상이었던 謝安과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고사와 저속한 언어유희를 통해 상호 비방하는 장면에서 大政治家로서의 역량은 다소 부족해 보이나, 儒學을 존중하며 經典의 義理에 정통한 학식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겠다.

4. 맺음말

魏晉시기는 어지러운 정치와 계급간의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질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당시 사상계에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儒敎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저하되고 老莊사상이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귀족화된 士大夫들은 儒敎에 구속되지 않고 老莊의 자연주의와 자유로운 생활태도에 강한 동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로 일상 행동에 드러냈던 것이지 老莊사상의 내용 그 자체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老莊사상을 행동에 옮긴 것이 바로 淸談의 유행이라 할 수 있다. 淸談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청아한 감화라는 의미로 상식적인 유교도덕을 초월한 내용을 가진 대화를 의미한다. 통치 집단 내부의 서로 속고 속이는 기만과 정권쟁취를 위한 암투는 끊임 없이 있었고, 허위와 보복이 난무하는 급박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士人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

31) 品藻편 제53조에서도 劉爽과 상호 비방하고 있다.

32) 井波律子 著, 李慶, 張榮湄 共譯, 『中國人的機智-以世說新語爲中心』, 上海, 學林出版社, 1998, 81-82쪽 참조.

山水에 은거하여 유유자적하거나 飲酒와 服藥에 도취되어 放蕩한 생활을 하는 등 처세의 방식이 크게 바뀌어 당시 清談의 분위기가 널리 만연하게 된 것이다. 魯迅이 『魏晉風度及文章與藥及酒之關係』에서 “東晉 이후에는 문장을 짓지 않고 清談이 유행하였는데, 『世說新語』에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東晉以後, 不做文章而流爲清談, 由世說新語裏可以看到)”라고 지적한 것처럼 東晉 시기에 이르러 清談의 기풍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데 士族文人은 물론 승려와 제왕들까지도 清談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朝野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왕중량(王坦之)과 임공(支遁)은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았다. 왕중량이 임공을 궤변가라고 말했더니, 임공이 왕중량을 평하길, “때묻은 모자(帽)를 쓰고, 거친 베 홑옷을 걸치고, 左傳을 끼고서, 정강성(鄭玄)의 수레 뒤나 쫓아다니고 있으니, 물건대 [그는 도대체] 어떤 먼지 차두인가?”라고 했다.³³⁾

個性和 自我의 중시는 魏晉 士人들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名教로 자신의 개성을 희생당해야만 했던 漢代 이래의 전통 관념을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하였다. 東晉시기 士族士人은 물론 승려나 제왕들까지도 清談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清談의 기풍이 크게 유행함에도 불구하고 유학경전의 사수태도를 보이는 王坦之를 支遁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또한 뒤떨어져 있다고 비꼬고 있다. 王坦之의 조부인 王承은 仁民愛物의 儒家정신과 덕망으로 유명하였으며, 부친인 王述은 『左傳』을 연구하여 『春秋左氏經傳通解』와 『春秋旨通』을 지었다. 그리고 王承의 어머니인 郝부인에게서는 법도를, 큰어머니인 鍾부인에게서는 예법을 모범으로 삼았다는 賢媛傳 제16조의 고사로 미루어 볼 때, 太原 王氏 집안의 家風은 상당히 儒家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한 王坦之가 「廢莊論」을 지을 정도로 老莊學을 싫어하고 儒學과 訓詁學을 좋아하여 經典의 義理에 정통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魏晉시기는 道家

33) 王中郎與林公絕不相得, 王謂林公詭辯; 林公道王云: “箸膩顏帽, 縹布單衣, 挾左傳, 逐鄭康成車後, 問是何物塵垢囊!” 『世說新語』 輕詆篇 第21조.

思想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儒家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전반의 문화는 道家의 淸靜無爲의 색채가 지배하였으나, 문벌제도 안에서는 儒家의 經學이 家敎를 통해 전수되는 이중구조를 지닌 시기라고 할 수 있다.³⁴⁾ 儒家의인 家風 속에서 성장한 王坦之는 어려서부터 효심과 우애가 두터웠으며, 고귀한 식견과 깊은 학식으로 자부심 또한 강했던 인물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모습과 저속한 언어로 상호 비방하는 유희의 모습에서 대정치가로서의 기품은 다소 떨어지지만, 謝安과 협조하여 풍전등화의 東晉 정권을 아심가들로부터 지켜 낼 수 있었던 점들로 미루어 보면 그가 經世의 지략이 부족하다고 결코 단언할 수 없다.

〈參考文獻〉

- 『晉書』, 臺北, 鼎文書局, 1980.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徐震堦,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1984.
 楊勇, 『世說新語校箋』, 臺北, 正文書局, 1992.
 金長煥, 『世說新語』(上·中·下), 서울, 살림出版社, 1996·1997·2000.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中國史』, 서울, 역민사, 1986.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白壽彝 主編, 임효섭·임춘성 譯, 『중국통사강요』,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何啓民 著, 『中古門第論集』, 臺北, 學生書局, 1978.
 宗白華 著, 『美學散步』,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朴美齡, 『世說新語中所反映的思想』, 臺北, 文津出版社, 1990.
 李澤厚 著, 윤수영 譯, 『美의 歷程』, 서울, 東文選, 1991.
 寧稼雨 著, 『世說新語與中古文化』,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劉緒貽 著, 『中國的儒學統治』,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6.
 蔣凡 著, 『世說新語英雄譜』,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蔣凡 著, 『世說新語的讀法』,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34) 朴敬姬, 「謝道韞을 통해 본 淸談時代의 여성」, 『中語中文學』, 2002, 31집, 245쪽 참조.

〈中文提要〉

魏晋时期长期处于分裂及战事下，西晋时期虽曾出现短暂的统一局面，亦旋於八王之乱之後告终。接著北方为外族占领，形成十六国割据。结果王室南迁偏安江南，进入东晋时期。时代剧变乱事之际，由於两汉哲学体系瓦解以及玄学的兴期，士人们开始一种重视自我、个性、才能以及感情，迥异於前朝肃穆氛围的全新态度，追求著前所未有的思想自由与解放。并且，生存意识以及思想也随著这股风气改变，形成一种崭新的人生观：不再赞颂两汉以来外在的道德行为，而是形成一种出於人物及人格本身的高洁性情及卓越才能，超凡清谈，秀丽外貌等的悠然自适，追求脱俗气节与姿态的内在精神世界，至上的价值基准及原则。

由於儒家思想衰微，代之而兴盛的老庄思想，便成为当时中心思想。然在老庄炽盛中，儒家思想绝非完全不存在。自汉代以来，儒家思想即为正统，其时无论政治制度、社会礼俗，皆以六经为依据。故老庄之学虽盛，儒学仍持续不辍，即使深於玄学的当时清谈诸贤，每论及经世，也不得不宗尚儒家，对儒家之人生哲学思想，仍不能不尊崇。这样的情况之下，最特别的家门就是以王承、王述、王坦之为代表的太原王氏。本论文通过『世说新语』里故事考察魏晋时代思想的二重的面貌，并且以太原王氏王坦之为探讨核心，透过此般对人物全面且多重的分析，可将魏晋名士之思想收容态度以及当代的思想主流等考察。

關鍵詞：世說新語，王坦之，人物形象，太原王氏，儒家，道家

〈Abstract〉

The Figure of 'Wangtanzhi':

A Study of Critical Comments on the Main Characters in 'Shishuoxinyu'

Kim, Jin-Young

After long period of war and division during the Wei-Jin Dynasties, the West Jin Dynasty appeared in history, but soon was divided into 16 countries through the War of the Eight Princes and emigrant invasions. This caused the royal family to transfer

its capital to the south, leading to the East Jin Dynasty. The philosophical system of the Han dynasty gradually collapsed because of social chaos leading scholars to concentrate on their self-realization, personality, aptitude, and emotion.

The Wei-Jin Dynasties were led by Taoism, but could not distance themselves from Confucianism. Society at large was governed by Taoism, but this era had dual structures in which Confucianism was trained at home through lineage systems. Scholars infatuated with Taoism had Confucian knowledge from an early age, and their ideologies could not be separated from Confucian values despite the fact that Taoism was prevalent. For this reason, Confucian family customs were still reflected by Wangsheng, Wangshu, and Wangtanzhi, referred to as the Wang families of Taiyuan.

This pap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Wangtanzhi, a noble born in the family of Taiyuan Wang during this confusing time, through the story of 'Shishuoxinyu'; and also presents the turmoil caused by the dual structure, where Confucianism still exists at a time when the Taoism is esteemed by many scholars.

Key Words: Taoism, Confucianism, Dual structure, Wangtanzhi, Shishuoxinyu

이 논문은 2016년 3월 18일에 접수되어 2016년 5월 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5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